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머저리가 돼 있었다. 남에게 못나 보이지 않으려고 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심지어는 내가 느끼는 감정도 억지웃음 속에 감추었다. 그 결과, 나는 애매한 사람이 되었다. 무슨 일을 해도 중간 정도에 그쳤고,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감정 표현도 서툴러서 내가 감탄하면 '영혼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래서지 나는 무언가를 두드러지게 잘하거나 어떤 일에 푹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부럽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 있게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보기 좋다. 중학교 때, 내가 한참 돈키호테를 동경했던 것도 그 때문일지 모른다.

사실 나는 돈키호테를 책보다 노래로 먼저 접했다. 형이 초등학교 졸업선물로 선물해준 MP3에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트레일러 곡이 들어있었고, 노래 가사 속 돈키호테의 굳건한 신념과 당당함에 소년은 한 눈에 반했다. 당장 인터넷을 뒤져 뮤지컬을 찾아보고, 서점에서 돈키호테를 사 밤을 새워 읽었다. 책으로 읽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중요한 에피소드만 모아놓았던 첫 번째 책과 달리 이번 책은 저자인 세르반테스가 썼던 모든 내용이 담겨있어 돈키호테라는 인물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

돈키호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얼까. '미친 놈'이다. 기사 소설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기사라고 믿고, 주변의 모든 것을 기사 소설에 나온 요소들로 착각한다. 돈키호테의 머릿속에서 그가 묵는 여관은 성이며, 그를 대접하는 여주인은 귀부인이다. 그에게 다가오는 남성은 결투를 청하는 기사거나 그를 무시하는 불한당이다. 그의 늙은 말은 세상에 견줄 바 없는 명마이며, 길가에 약초를 적당히 섞어놓은 것은 어떤 상처든 회복할 수 있는 묘약이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열망하는 돈키호테의 꿈은 뮤지컬 노래 가사처럼 '이룰 수 없는 꿈(Impossible dream)'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미치광이라고 비웃는다. 작품 안의 인물뿐만 아니라 돈키호테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돈키호테의 우스꽝스럽고 변태적인 행위를 비웃으며, 이 소설은 미치광이 돈키호테를 비판하는 책이라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 책이 정말로 비웃고 있는 것은 돈키호테가 아닌 돈키호테를 비웃는 자들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또 돈키호테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눈치 챌 수 있다.

돈키호테는 고결하다. 그의 꿈은 비록 이룰 수 없었던 것이지만 그가 꿈꾸었던 정의로운 세상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돈키호테는 언제나 한계상황에 놓여있다. 굶주리고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한다. 그럼에도 그는 다친 몸을 추스르고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우뚝 선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미치광이라 비웃지만 돈키호테는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을 향해 분개할 뿐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꿈이 허황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기사도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호통 친다.

돈키호테는 자신을 숨기는 법이 없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신이 먼저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라고 밝히며, 자신의 기사도에 대해 당당히 설명한다. 그는 자신에게 솔직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에는 분노하고, 슬플 때는 탄식하며, 기쁜 때는 한바탕 웃는다. 비록 돈키호테라는 존재 자체가 시골의 늙은 귀족 깨하다의 망상에서 만들어진 거짓된 인물이라고 사람들은 간주하지만, 돈키호테는 누구보다도 진실한 인물이다. 나는 처음 돈키호테를 볼 때 그의 기행에 비웃으며 책을 읽어나갔지만, 읽을수록 자신의 꿈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그 것을 향해 무한

히 달려 나갈 수 있는 그의 정신에 매료되었다. 삽화에 그려진 돈키호테는 왜소하고 낮은 갑옷을 무장한 채 높은 말 로시난테위에 어정쩡하게 앉아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소설을 읽는 내내 나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돈키호테의 모습은 우람하고 누구보다도 강인한 팔을 가진 최고의 기사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려 꿈을 좇지 못한 나와는 달리 주변의 시선을 쳐내고 앞만 볼 수 있는 그가 영웅으로 비쳤던 것이다.

돈키호테를 비롯한 사람들 대다수는 그렇다할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있기는커녕 현실에 안주하여 그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뿐인 사람들이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구태여 육체와 정신을 혹사시키는 돈키호테를 그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비웃으며 구경거리 삼는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 죽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들 또한 언젠가는 죽는다. 돈키호테처럼 자신의 열망을 향해 도전하기보다 하루하루 살기에 바빠 신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일부는 현실에 좌절해 일찍이 꿈을 포기했을 지도 모른다. 기껏 꿈을 갖고 이를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채 죽는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가 있을까? 돈키호테처럼 완전히 미쳐서 때로는 이를 수 없는 꿈을 알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좇아보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그저 편히 앉아서 도전하는 자를 비웃는 자와 온갖 역경에 부딪히면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자 어느 쪽이 더 비웃음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더 인간적으로 충실하게 살았냐고 묻는다면 과연 어떨까? 돈키호테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돈키호테는 광기로 가득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꿈을 상상할 때에 나오는 설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나도 가끔씩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정말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볼 때, 마음을 울리는 영상을 보았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낀다. 그리고 나도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들떠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 없다. 마치 마약을 한 듯 혼자 히죽대며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펼치고 있으면 나도 광기에 사로잡히는 묘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나는 결정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가 부족하다.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서 무슨 일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부터 걱정한다. 당연히 내 느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다. 진짜 전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감정을 숨기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

결국 돈키호테가 나를 일깨운 점은 때로는 완전히 미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계산 없이 실천으로 옮기고, 남이 혀를 차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수백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심장 깊숙이 넣어둔 감정을 자신 있게 드러내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자. 한톤 높여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자. 정말 미친 척하면서 가면을 벗고 캐릭터도 바꾸어보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도록. 너희들은 비웃을 테면 비웃어봐라. 돈키호테가 철로 된 투구를 쓰고 달려 나가듯,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는 외칠 테다.

“여기는 라만차! 나는 두려울 것 없는 돈키호테다!”